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설교

모세는 출애굽 후 둘째 해 정월 초하루에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교과서와 시간표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해야 하지?’ 싶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출발점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는 지체 없이 회막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달았으며,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의 기구들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집 짓기나 텐트 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의식이었죠. 제사장들이 걸칠 에봇과 흉패까지 정확히 갖추었듯이, 우리의 내면도 말씀과 기도로 잘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마련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 서열이나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우듯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용서를 구하는 작은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의 텐트가 점점 성막처럼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히 들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순서를 따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 가지 결단을 해 보세요.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고,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소리 내어 읽으며, 하루에 한 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작은 순종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임재와 변화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작고 약한 내 모습 다 같이

말씀봉독 출애굽기 40:17~38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시험과 갈등 앞에서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소서. 가정과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오늘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